

★ 언론 감시 민주주의 웹사이트

집단지성(언론)

사업계획서

2022.04

신하영

“

목차

”

사업의 필요성

언론 감시 필요성

시민이 해야 하는 이유

이미 비슷한 거 많잖아.

소개

집단지성 플랫폼 소개

집단지성(언론) 소개

특징

참여 방법

상세

구성 요소

비즈니스 모델

계획

디자인

초기 홍보

동료 모집

1. 언론 감시 필요성

“

긴 말이 필요한가?

”

- 언론은 세상을 보는 창문, 역사 기록서, 공공 전문지 등의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이 대단함.
행정, 입법, 사법부와 더불어 제 4부라고 불릴 정도임.
- 그런 중요한 언론이 권력의 개가 되면 알 권리가 침해되는 것에서 나아가 약자 보호와 민주주의에 영향을 끼침.
예) 땡전뉴스, 윤비어천가, 귀족노조 프레임 등
- 한국 언론은 세계 언론 신뢰도 평가에서 21년 기준 5년 연속 최하위, 그러나 자유도 지수는 상위. 아이러니
- 인간은 스스로 잘난 게 아니라 배우고 상호작용하면서 성장하는 종임.
- 일부 양심적인 언론인에게만 기대기에는 썩은 묵이 너무 깊다.
 - 지나친 정파성, 약한 언론 규제책, 가짜뉴스, 마녀사냥, 가이드라인 무시 등
-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얼마든지 미디어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다.
- 또한, 특수한 지위인 언론과 협력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.

사권 분립



2. 시민(군중)이 해야 하는 이유

“

5부의 힘!

”

- '시민권력'을 의회, 정부, 법원, 언론에 이어 '제5부' 라고 칭함.
- 쉽고 자유롭고 분산되는 힘이 시민운동의 특징. 시민단체는 반대로 수직적이고 결집되어 있다.
- 생업도 바쁜데, 정치 감시하는 걸로도 벅찬데, 뭘 또 언론까지 감시하라는 거야? 전문적인 단체가 해주면 안돼? NO! 정치와 언론은 권력이 막강하고, 시민단체는 가난하다. 시민사회가 간단간단하게 나눠서 참여하면 숫자로 압도할 수 있다.
- 언론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창이며 우리에게 소식을 알려주는 종이다. 종이 좌지우지하게 뉘들텐가?
- 기득권은 특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데올로기를 이용한다. 현대사회에서 적폐세력은 이미 언론을 길들였다.
- 정치인은 법을 만들 수 있고, 언론은 여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지만 시민단체는 고발하는 것밖에 더 할 수 있는가? 실제로 많은 성취를 이루어냈지만 정치언론계보다 더 많은 노력과 참여를 필요로 한다. 시민단체를 비하하는 게 아니다. 무력한 이유는 대의민주주의 시스템 한계 때문이다. 현재 대부분 시민단체 내부 분위기는 수직적이고 결집되어 있다.
- 분업사회의 효율을 유지하면서 직업 언론, 정치인을 감시하려면 시민단체의 응고되고 조직된 힘과 시민운동의 자율적이고 즉각적인 힘이 둘다 필요하다. 연대해서 시너지를 내야 한다.

3. 이미 비슷한 거 많잖아.

“

아 보완하겠다니깐요

”

시민단체	민주언론시민연합
데이터	빅카인즈
비판	마이 기레기
비판	리포트래시
비판	노룩뉴스

비슷한 언론 관련 사이트

- ◀ 언론 비평하는 시민단체
- ◀ 공공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하는 걸 돕기 위해 만든 사이트
- ◀ 시민이 만들어 운영하는 사이트1. 기자 위키, 검사 위키, 비판글이 특징.
- ◀ 시민이 만들어 운영하는 사이트2. 나쁜 기사 제보, 명예의 전당, 기사 평가가 특징.
- ◀ 시민이 만들어 운영하는 사이트3. 기자DB, 명예의 전당이 특징.

- ❖ 시민이 만든 사이트는 기레기 박제에 치중되어 있음. → 프레임, 제보 등 기능 추가
- ❖ 언론 모음 사이트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, 검색 및 분류 기능이 부족함. → 태그 추가
- ❖ 미디어 리터러시, 전문적인 언론 비평을 시민이 쉽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함.



시민사회 온라인 참여 문제해결+민주주의 플랫폼!



집단지성

집단지성이라는 이름의 민주주의 문제해결 플랫폼으로,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는다. 언론 평가 및 감시, 집단 행동, 일대기 등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다.

언론 등 내용이 방대하여 전문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집단지성(명칭)이라는 이름을 붙여 부속 사이트로 운영한다.

이름	집단지성
대목차 (임시)	문제해결 / 언론(간략) / 일대기 / 시민사회 / 오락 / 참고 / 마이페이지
분류	온라인 홈페이지
특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언론• 취향• 의정 (의정활동 다이어리 등)• 환경• 솔루션 저널리즘 언론사
도메인	나중에 생각해봄

4-2. 집단지성(언론) 소개

“언론을 시민의 편으로! 랩독을 길들이는 우리의 힘”



집단지성(언론)

집단지성 플랫폼의 하위 플랫폼.

제 4부인 언론 권력 대상으로는 다룰 게 많아서 특화한 부속 사이트로 운영함.

본 플랫폼에는 일부 기능만 남기고 연결시킬 예정으로, 중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 본 플랫폼보다 먼저 만들어서 자리 잡아야 함.

이름	집단지성(언론)
추후 추가할 기능	언론101(이벤트), 사실 팩트체크(판지), 미디어 리더러시, 비평 교육, 양식 모음, 광고 관련 등
분류	온라인 홈페이지
구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언론 분류 (태그)• 언론 역사 및 사전사고 정리• 각계각층 평가• 제보 요청 - 기사화 요청• 프레임 제보(언론 병폐 고발)• 팩트체크 지수 등
도메인	미정

5. 특징

좋은 언론, 나한테 필요한 정보가 있는 언론을
찾는데 도움을 줌. (성향 스펙트럼)
→ 정치적 편향성에 선동 당하지 않을 수 있음.

의명에 기대서 불확실한 평가를 할 위험이 있는 사이트
→ 근거를 입력하는 탭 추가, 민연련 등 전문가 평가도 연계함.

다른 언론비평 사이트는 기자를 주로 감시함.
→ 언론사에 초점을 두고 비판한다는 차별점



테마별 언론을 한 눈에 보기 힘들 → 검색(목록)

SNS에 올라온 의미있는 문제 제기가 자주 문힘.
→ 병폐 고발 (타인이 올려도 됨. 링크 등)

제보에 돈 들고 일일이 찾아야 함, 제보 운동이
시민운동 중 하나 → 제보 정보, 함께로그

전문가들이 지적해도
대중은 잘 모름.
언론의 실책이 되지
않음
→ 전문가 평가 정리

속보, 단편 위주로 기사가 발행됨
→ 일대기(맥락) 기능 추후 추가

편향, 오보 지적하는 만지 기능 추후 추가
→ 심환대에 올라온 기사 전문에 직접
태그, 표시, 문장, 링크 다는 기능

법적 근거가 필요
→ 법근거 소개

6. 참여 방법



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참여를 유도함.
→ 평가, 검색, 정보 정리, 제보, 기자단, 이벤트 등



7. 구성 요소 소개

언론
분류

- 이념 스펙트럼
- (불)명예의 전당
- 라벨링 (그룹화)

언론
검색

- 지역별
- 매체별
 - 유튜브
 - 뉴스레터
 - 시사 방송
 - 라디오
- 방송 여부
 - 특집 방송
 - 과거 뉴스

평가

- 종합 점수
- 시민 평가
- 팩트체크 지수
- 전문가 평가
 - 민연련
 - 감시단체
 - 미디어 비평
- 언론 평가 기법, 이론 정보
- 외부 평가
 - 비평 모음

제보/
참여

- 기사화 요청
 - 제보처 모음
- 제보 요청
- 언론 병폐 고발
 - 프레임 제보
 - 언론에게 바란다
- 시민기자
 - 기자단
 - 오마이뉴스
 - 마을미디어
 - 미디어퍼블릭 액세스권

대부분의 요소에는 사용자 편집 기능이 있음.

최종 정리가 아니며 구성 요소가 수정될 수 있음

8. 비즈니스 모델

“ 운영비는 어떻게 할 거야?! ”

필요한 비용

- 수고비
- 광고비
- 유지관리비
- 사업 확장비

+ 브랜드 저널리즘은 입점비 내야
언론 목록에 추가해줌.

플랫폼 공간 이용

기자단
모집
홍보비

청정한 언
론이 되겠
다고 약속
하는 금액
(언론)

거대 언론의 책무 강조.
후원 비용 박제+경쟁 유도

+유착 안 하겠다는 약속
: 거대 기업, 정당에
지지 및 결심비 받기

미디어 리터러시, 경연유착
윤리 등 교육 기능까지
넓혀야 됨.

중견 이상
기업에 언론
윤리 교육
의무화하여
교육비 벌기

지출내역마
다 펀딩 받기
(시민)

후원 방식
투명성, 동기 부여

사이트 데이터 활용

- ◆ 설문조사 회사에
마이페이지 언론
선호도 데이터 판매
- ◆ 언론 컨설팅 값
(시민 참여)

자체 벌이

유튜브 공식
계정 운영 등
플랫폼 수익

각종 지
원 (정
부, 단체)

광고
- 바닥 배너
- 홈페이지
곳곳에 있는
아이콘 누르고
퍼즐 모으기


9. 디자인


디자인 규칙


- ❖ 집단지성이라고 무조건 파란색으로만 하지 않도록 주의.
- ❖ 파란색은 이지적이고 차분한 느낌을 주지만 열정, 의욕, 분노와는 거리가 멀다. 다양한 감정을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.
- ❖ 주요 정당 색깔을 피할 수 있도록 메인 컬러를 다양하게 사용한다.
- ❖ 여건이 된다면 다양한 타겟층을 사로잡기 위하여 여러 스킨을 준비한다.
- ❖ 디자인 전문가의 의견으로 만들고 싶지만 안 된다면, 아래 1안으로 진행함.

색상 기본

- ❖ 산뜻한 색감

 R253 G239 B057


 R255 G051 B051


 R255 G255 B255


색상 보조

- ❖ 상세 페이지 등 홈페이지 내 팝업에 사용.

- ❖ 서류 더미에서 꺼낸 파일집 컨셉

 R253 G210 B177

 R000 G038 B076

 R225 G000 B224

그 외

- ❖ 태극기 색깔인 흰색, 검정색, 파란색, 빨간색으로 하는 2안
- ❖ 한국풍 디자인과 색감으로 하는 3안

10. 초기 홍보

목표와 광고 전략

- 도달률이 중요해서 최대한 다양한 매체에 닿을 필요가 있음.
- 타겟층이 광범위하지만 구체적인 사례로 드라마를 만드는 공명 전략은 효과적.
- 비용이 최소한으로 들어가야 해서 공짜로 접근할 수 있는 SNS를 주로 활용함. 입소문 전략
- 이미지 전략(5부의 요새), 공명 전략(스토리텔링 및 리얼리티), 일반주장 전략(파이 넓히기) 등
- 만약 광고비가 충분할 경우 3개월 집중해서 온 매체에 광고하고 이후 파동형 패턴으로 인터넷 배너 광고 위주로 변경

광고 메시지

- 세상을 바꾸는 우리의 힘 집단지성! → 집단지성의 표어
- 언론을 길들이는 우리의 힘 집단지성! → 집단지성(언론)의 표어
- 언론을 개에 비유하여 위상을 낮추고 권력을 견제함.
- 시민은 등글고 회색의 내부 그림자를 가진 인간형 존재로 표현. 성별, 생김새 등 특정할 수 있는 요소가 드러나지 않아야 함.

홍보 창구

- 유튜브, 브런치 등에 홍보글 작성
- 트위터, 커뮤니티 등 언론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게시글에 댓글로 홍보하기
- 민연련, 대안 언론 등 혁신을 찾는 곳에서 인터뷰, 제보(퍼블릭시티)
- 일반인 참여 방송 같은데 나가서 입 툰다 (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전략)

11. 동료 모집

인원



나

- 아이디어 원안
- 화면 정의서
- 경력x
- 각종 업무 보조 및 잡일 오케이

.....



웹 디자이너

.....



웹 퍼블리셔

.....



웹 개발자

.....



서버 제공, 자금줄

나에 대하여

- 경력도 돈도 없는 사회초년생
- 어떻게 진척시켜야 할지도 사실 잘 모르겠음.
- 신문방송학과 졸업생
- 포토샵 등 다양하게 배울 생각이므로 여러 직무를 보조할 수 있음.
- 부산 거주함

상황

- 환경: 구축된 게 없음
- 인건비: 현재 아무 것도 없어서 지급해드리기 힘들.
- 개발 일정: 동료가 모인 그때부터 가급적 올해 안까지!

단기 일정

- SK하이닉스 사회문제 해결 스타트업 아이디어 공모전 (응모 : ~ 06. 06 자정까지)
- 2022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예비창업팀 (~05.27 18시까지)